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12월 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기술정책과 이재홍 과장(02-2110-5171), 이경수 사무관(02-2110-5172)		

지경부 젊은 사무관들, 서울공대 캠퍼스를 찾은 까닭은?

- 지경부 사무관들과 서울공대생, 소통의 시간 가져 -

□ 지식경제부 젊은 사무관들 15명이 지난 12월 7일 오후에 서울대 캠퍼스를 찾아감

○ 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 출신으로 서울공대 기계항공공학부에서 "공학기술과 사회"라는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유영상 객원교수의 요청으로 2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 연사로 후배 공무원들을 서울공대로 초청한 것

○ 최근 지식경제부도 취임이후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강조해 온 신임 홍석우 장관의 적극적 지원으로 본 행사가 성사됨

□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진다면 한-미 FTA와 같은 국민적 논란과 오해도 보다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지식경제부가 앞장서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

○ 이어 지식경제부 사무관들은 산업기술의 발전방향, 이공계 분야의 비전 등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 참여한 학생들은 정부에 대한 바램과 고민 사항 등을 선배 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

□ 금번 행사에 참석한 지식경제부 사무관들은 주로 행시 49회에서 54회까지 입사 5년 이내의 젊은 사무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참여한 15명중에서 서울공대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음

○ 본 행사에 참석한 주세형 사무관(행시 49회, 서울공대 99학번,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근무)은 "정부는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입대책에 고민이 많은데 요즘 학생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야 할지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힘

□ 한편, 지식경제부는 주니어보드 등을 활용, 향후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지경부 선배 공무원들과 대화 개요**

☐ **일시** : 12.7(수) 16:00~18:00

＊ 서울대 유영상 교수의 “공학기술과 사회” 과목의 마지막 수업시간에 진행 (학부생, 대학원생, 문과 학생 포함)

☐ **장소** : 서울대 301동 118호 강의실

☐ **대상** : 서울공대(타 단과대 포함) 학부·대학원생 약 300명

○ 수강생 200명 및 기타 참여 학생 100여명

☐ **주제** : “지식경제부 선배들과 미래를 나누다.”

☐ **행사내용**

○ 장관 인사말씀(10분 내외)

○ 프레젠테이션(약 45분) : 산업기술의 발전 비전, 이공계 분야 비전 등을 내용으로 사무관들이 직접 강연

- 일자리 관련해서 PT 이후 출연연, 공기업, 민간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서울공대 선배 각 1분씩을 섭외하여 설명

○ 소통의 시간(약 45분) : 상호간의 질의응답 등 격의 없는 대화

＊ 지식경제부 젊은 공무원 선배(행시 49회~54회) 15명과 대화의 시간

※ 공식 행사 이후 비공식적으로 식당에서 간단히 Beer 파티 개최